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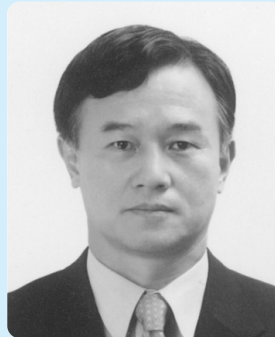
최평락 신임 특허청 차장

통상 및 산업정책 전문가

정부는 지난 6월 19일자로 특허청 차장에 최평락 전 산업자원부 기간제조산업본부장을 임명했다.

최평락 특허청 신임 차장은 행정고시 23회(79년 임용)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상공부 산업기계과, 창업지원과, 무역정책과 등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장, 재정기획관, 기간제조산업본부장 등을 거치면서 통상·산업정책 전문 관

료로 인정받았다. 특히 재정기획관 재직 당시 방대한 산업·무역·에너지 분야 예산편성을 위한 관련 부처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하기도 하였다.



- 79년 행정고시(23회)
- 충남 논산(55년생)
- 서울고
- 연세대 행정학과
- 미국, 밴터빌트대 경제학 석사
- 경희대 경영학 박사
- 통상산업부 공보관
-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 산자부 무역정책과장
- 국제협력투자심의관
- 재정기획관
- 기간제조산업본부장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홈페이지 하나로 OK

지식재산권 보호 홈페이지 통합서비스 개시

특허청은 국내·외에서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발명가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 통합 서비스(<http://ippc.kipo.go.kr>)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내와 해외 지재권 보호 관련 사이트가 분리되어 있어 지재권 보호관련 정보를 구하는 기업이나 발명가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기도 어려워 정부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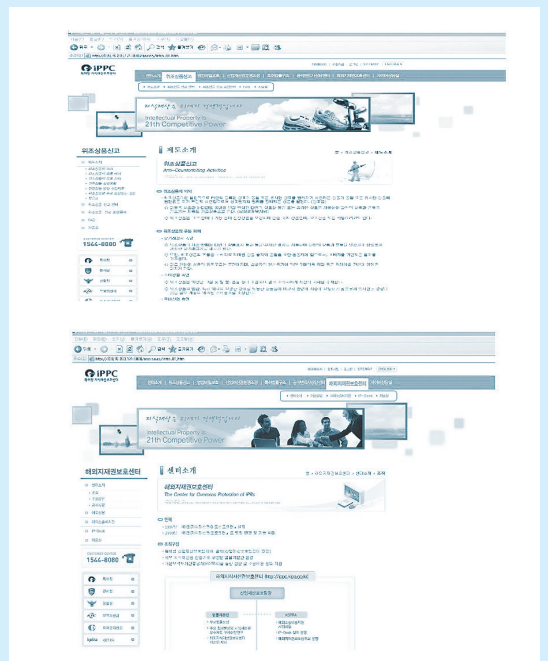
예컨대 국내기업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신고하려 할 경우, 「지식재산권보호센터」에 접속해야 했고, 동시에 해외에서 자사의 위조상

품이 유통되는 경우, 「해외지재권보호센터」에 또다시 접속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야 했다.

이번에 새로 오픈하는 국내·외 지재권보호 통합 홈페이지 서비스는 한번 접속으로 국내·외 지재권 관련 서비스 신청이나 정보 및 자료 획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특허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허법률구조사업, 공익변리사 상담 등 지재권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신청 및 자료제공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가 필요한 서비스를 one-stop으로 받을 수 있

도록 개선했다.



美·日·유럽 수준의 고품질 특허심사정책 추진

고품질 맞춤형 특허심사와 실용적 지재산 정책으로 전환

특허심사의 주안점이 ‘품질’로 전환되고, 심사처리기간도 ‘기간단축’에서 ‘고객 맞춤형’으로 바뀌게 된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지난 6월 17일 ‘제2기 책임운영기관 출범에 따른 특허행정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브리핑에서 “빠른 심사에서 高品質 심사로 특허심사정책을 전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허청의 이러한 방향 전환은, 선진

국 수준의 고품질 심사에 주력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하고 튼튼한 특허’를 창출해 내기 위한 전략적 변화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선진국형 심사 품질지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새로운 기술분류 체계를 구축하여 선행(先行)기술검색을 고도화하는 등 전사적 품질관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일률적이던 심사처리기간도, ‘빠른심사, 보통심사, 늦은심사’로 나누

어 선택하게 하는 ‘맞춤형 3 Track 특허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별·기술분야별 다양한 요구에 맞춰갈 계획이다.

국제 특허질서가 미·일·유럽 중심에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G5 체제’로 확대되면서 특허심사 품질이 중시되고, 기업들도 일률적인 빠른 심사보다 맞춤형 심사처리를 선호하는 등 국내의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 서울에서도 구술심리 개최

구술심리 활성화에 따라 장애인·고령인 심판당사자의 편익 고려

오는 7월부터 특허심판사건의 당사자가 수도권 등의 원격지에 거주하면서 장애인·고령인, 또는 10인 이상 다수인 경우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구술심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심판원은 종래 특허청 소재지인 대전청사에서만 구술심리를 개최했으나, 심판당사자의 편익을 높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당사자가 원격지(서울·인천·경기

지역 또는 강원·제주지역 등)에 거주하고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인 또는 10인 이상 다수인 경우, 신청에 의해 서울에서 구술심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심판사무취급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서울에서 심판사건의 구술심리를 개최할 때 기존 특허청 서울사무소 회의실의 집기와 비품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실용주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했고, 심판정에 통상 설치되는 심판단을 설치하지 않고 심판관과 당사자가 같은 눈높이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함으로써 권위적인 요소를 없애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구술심리 서울사무소 개최의 이용 방법은 기존의 구술심리신청서(심판사건신청서)에 서울사무소에서 구술심리 개최를 희망한다는 취지와 이유를 간단히 기재하고, 증빙서류로서 장애인등록증, 주민증 사본, 구술심리 참석자명단 등을 첨부하면 된다. 심사·심판 절차에서 특허청에 이미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다.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차이나 브랜드”로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 급증 추세

중국 기업들도 이제는 고유 브랜드를 부착한 상품으로 한국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3년에는 220건에 불과하던 중국기업의 한국내 상표 출원이 2005년 716건, 2007년 1,129건으로 최근 5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에서의 전체 외국인 상표출원 증가폭(1.2배)과 견주어 볼 때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서, 중국 기업들이 한국시장에서의 독자 브랜드 육성 및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산업부문별 출원 비중을 보면, 2000년도 이전에는 화공약품 및 비료

(10.3%), 차·곡물(8.0%), 주류(7.4%) 등 원자재와 식품·음료 분야의 출원이 비교적 많았으나, 최근에는 전기전자(12.4%)·산업용 기계(7.1%)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의류·신발류(12.3%)의 출원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타인이 특허·상표권 이전하려 하면, 즉시 확인 가능

특허권, 상표권 등 권리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실시

최근 위조기술 등이 고도로 발달하여 서류위조가 용이하고, 이러한 서류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도용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허청은 권리자가 아닌 타인이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특허, 상표, 디자인

권리를 다른 타인에게 이전시키려거나, 실시권을 설정하려는 등 제3자가 자기의 권리를 도용하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했다.

특허권의 이전신청서 등, 권리에 변동이 가져오는 중요한 신청서가 특허청에 접수되면, 자동으로 해당

권리자의 휴대폰문자서비스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서 접수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권리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요청 등록을 하면 되고, 수수료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한다.



미국 특허 등록을 위한 고속도로 열렸다!

특허심사하이웨이 통해 최대 22개월 빨리 미국심사결과 확인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여 한국 또는 미국에 특허출원할 경우, 일반 특허출원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허심사하이웨이의 개념

A, B국가에 공통으로 특허가 신청된 경우에, A국에서 특허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B국은 A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출원을 다른 출원에 비하여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

특허청이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 실시하고 있는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 실적을 검토해 본 결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특허출원이 동 제도를 이용한 특허출원들 중에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특허등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S사가 우리나라에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여 특허심사를 청구한지 2개월 만에 특허를 획득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출원 심사처리기간이 약 10개월인 것을 고려한다면, 적어

도 8개월 빨리 심사결과를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양국 특허청은 2008년 1월 28일부터 2009년 1월 28일까지 1년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시범실시한 후, 전면시행 단계로 돌입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한·덴마크 간 특허고속도로 뚫린다.”

양국 특허청장 회담에서 합의

고정식 특허청장은 지난 6월 11일 (수) 대전 특허청에서 에스페콩스타드(Jesper Kongstad) 덴마크 특허청장과 제3차 한·덴마크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양청 간 특허심사하이웨이 도입에 합의하였다.

덴마크 특허청은 특허출원 건수는 많지 않지만, 강소국답게 출원의 내용과 심사품질 면에서 매우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유럽연합특허청(EPO)은 작년 4월부터 유럽판 PPH인 UPP

(Utilisation Pilot Project)를 실시하고 있는데, EPO 34개 회원국 중 덴마크를 비롯하여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등 4개 특허청이 협력 파트너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과 덴마크 양국은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심사처리기간의 단축과 심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출원인은 더욱 신속히 심사결과를 알 수 있게 되며 절차도 간소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로서는 덴마크와의 PPH를 통해 향후 EPO 및 다른 유럽 국가와의 PPH 협력 추진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덴마크 양국 간 특허심사하이웨이는 현재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말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 기간 중 양국 청장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제공 특허청